

중국의 역사·문화 속내 읽기

중국문화답사기 위취위 지음

글이 중국 불교를 알리는 목적이 아니라 더러도 독서를 즐기는 불자들의 서거에 의거하는 중국문화 소개한 책이 한 두 권쯤은 있게 마련이다. 하지만 대부분 한국인의 시각으로 쓰여진 책들이다. 그래서 우리는 중국이라는 거대한 나라의 장구하고도 다채로운 역사와 문화를 제대로 이해할 수 없었던지도 모른다.

우리말로 출간된 <중국문화답사기 상·하>(한정현·김명학 옮김, 명지사)는 중국 역사와 문화의 속내까지 알게 하는 책이

40선승이 주는 깨달음 향기

선승들의 수행담을 풀어놓은 책 <선문에 뜨는 달은 말을 하더라>(우리·전2권)가 출간됐다.

글쓴이는 현재 전집시리즈(총 10권)를 집필하고 있는 정유스님. 그는 달마 선사부터 현존하는 석주 스님(칠보사 조실)까지 중국과 우리나라 선승들의 수행 현장으로 독자를 안내한다. 그러나 이 책의 미덕은 단순한 선승들의 일대기나 대화를 나열하는 데 그치지 않는다. 그 속에서 40여 선승들이 깨침을 얻었거나, 깨침을 준 선문담을 현대인들을 위해 깨달음의 향기로 풀어내고 있다는 점이다. 값 3천1천원. 김중근 기자

하늘과 별과 깨침 담은 선시집

풍막대기 이시우 지음

이시우 전 서울대(천문학과) 교수는 밤하늘의 별을 관찰하는데 평생을 바쳐온 사람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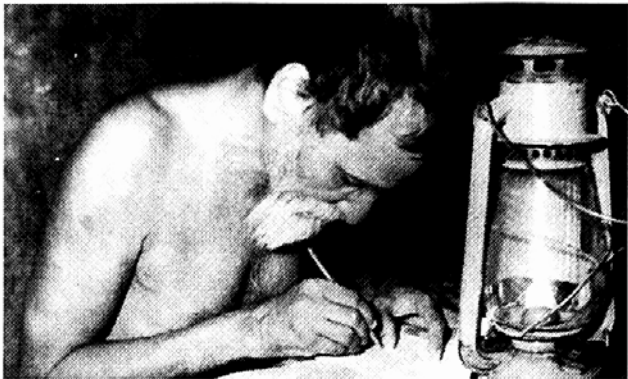
심지어 화장실 갈 때도 전공서적을 놓지 않았다. 그런 그가 98년 정년을 5년여 남겨놓고 스스로 대학 강단을 물러서면서부터의 도(?)를 시작했다. 작년에 <별과 인간의 일생>(신구문화사)이란 수필집을 내더니 올해엔 <달과 별> 시집을 출간했다.

<풍막대기>(신구문화사)는 이 교수가 불법에 빠져들면서 느꼈던 것들을 쏟아낸 일종의 선(禪) 시집이다. <금강경> 등 경

“자비 사상만이 진정한 힘”

‘비노바 바베’ 칼린디 지음

세상 통해 진리 깨달아 무소유·비폭력 실천한 위대한 영혼의 일대기



램프를 켜놓고 글을 쓰고 있는 비노바 바베.

비노바 바베(1895~1982). 카스트 제도가 엄격했던 시절, 인도 최고의 계급인 브라만 집안에서 태어났지만 스스로 브라만을 상징하는 시카(긴 머리 타래)를 자르고 노동의 길을 택했다. 그리고 시작된 ‘비폭력저항운동’(사티아그라하)과 ‘토지헌납운동’(부단). 20여 년 동안 인도 전역을 걸어다니며 지주들을 설득, 스코틀랜드만 땅을 헌납받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었다. 그러나 그는 그런 기적적인 성취에 도취되지도 안주하지도 않았다. 천민에서 총리에 이르기까지 그를 지도자로 떠받들자 모든 것을 버리고 다시 내면 수행의 세계로 빠져들었다.

실천문화사가 ‘역사속인물찾기’ 시리즈의 열두 번째로 펴낸 <비노바 바베>(칼린디 지음, 김문호 옮김)의 주인공 비노바 바베는 우리에게 다소 낯설지만 간디와 함께 인도의 위대한 지도자로 꼽히는 사람이다.

바베는 흔들림 없는 확고한 신념으로 간디의 사상을 평생 몸으로 실천했다. 책은 바베가 영적인 진리를 추구하는 수행자에 그치지 않고, 그의 이상을 현실에서 몸소 구현하려 했던 실천 의지의 소유자임을 강조한다.

바베는 브라만으로 태어났으나 스스로 안락이 보였던 그 길을 벗어 던졌다. 10살 때부터 부타를 존경해온 그는 21살 때 대학을 중퇴하고 진리를 찾아 집을 떠났다. 고행자, 상자와 토론했던 바베는 세상을 통해서만 구할 수 있음을 깨달았다. 그 구도의 길에서 간디를 만나게 된다.

그는 간디의 아쉬람(공동체 마을)에서 ‘정치적 자유와 정신적인 발전’을 동일시하고 동시적인 목표로 삼는 일이 가능함을 확인했다. 이때부터 바베는 ‘신을 찾고 사람들을 섬기는 일, 특히 인도의 가난한 사람들을 섬기는 일’에 자신을 바치기

로 하고 무소유의 삶을 살 것을 서약했다. 그리고 육체 노동을 통해 자신의 말을 실천에 옮겼다. 그에게 물레질은 바로 ‘진리’를 섬기는 일이었다.

바베는 사회적 문제를 적극적으로 맞대응했다. 내면적 성찰 역시 사회에서 일어날 수밖에 없는 갈등과 그 뿌리를 어떻게 바꿔 나갈 것인가에 대한 성찰이었다. 이러한 생각은 1951년부터 시작된 토지헌납운동으로 구체화된다.

토지헌납운동은 ‘자연은 누구의 것도 아니다’는 무소유 사상에 대한 신념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그러나 그 속에서 바베가 진정 말하고자 했던 것은 바로 자비의 이념이다. “조직도 정무도 경전도 무기도 자비의 사상을

당할 수는 없다.”

간디와 만나 사회개혁에 뛰어든 지 50년 만인 1966년 바베는 의적인 활동을 줄이고 내면적인 수행의 길로 들어섰다. 87살에 죽음이 임박했음을 깨달자 일체의 음식을 거부하고 단식 80일만에 스스로 생을 마감했다.

이 책의 이야기를 이끄는 화자는 ‘나’이다. 하지만 자서전은 아니다. 생전에 그와 절친했던 칼린디가 그의 회상을 정리한 책이다. 때문에 독자는 ‘조각그림 맞추기’ 놀이를 할 때처럼 단편적인 일화로 빠질 위험이 있다. 그러나 조각그림을 온전히 맞추었을 때는 ‘마하트마’라는 호칭이 어색하지 않은, 또 한 사람의 ‘위대한 영혼’을 만나게 된다. 값 1만2천원. 권형진 기자(jinny@buddhopia.com)

새로운 책

▲산사 100배 즐기기(중앙M&B)= 명산의 명찰을 소재로 한 레저북. 천 년고찰과 암자 58곳을 소개하고 있는 이 책은, 사찰과 스님에 얽힌 재미있는 이야기를 중심으로 전각과 불상, 그리고 탑 등 대표적인 문화재를 다룰 때 놓치지 말아야 할 점을 담고 있다. 이와 함께 사찰이 자리잡고 있는 명산과 가 볼만한 곳, 맛집과 숙박지 등 풍부한 여행정보를 실어 지도와 함께 실려 있어 여행의 동반자로 삼을 만하다. 값 8천원.

▲한국불교인물사상사(중앙승가대학교 신문사 펴냄)= 중앙승가대신문이 창간 10주년을 맞아 펴낸 책. 지난 96년 3월부터 6월까지 4년여 동안 승가대신문 학술 면에 연재했던 ‘한국불교인물사상사’를 단행본으로 출간했다. 조선·의상·태고·군여대사 등 한국불교 고승 42명의 사상과 일화가 담겨 있다.

▲신라인과의 대화(히라노 교코 글·그림, 사람in)= 일본의 여류화가 히라노 교코 씨의 경주 남산 마애불에 대한 20여 년간의 열정을 담은 책이다. 이 책에는 남산의 대표적인 유적인 칠불암, 신선암의 마애불, 상선암의 마애석가여래좌상, 탑골의 대불암을 비롯 세계적 문화유산에 대한 상세한 감상과 사진, 그리고 글쓴이의 그림이 담겨져 있다. 값 7천5백원.

▲일본으로 건너간 한국 음식(정대성 지음, 김문길 옮김, 숲)= 음식 문화를 통해 바라본 일본, 일본 문화 곳곳에 배어 있는 우리 옛 문화, 그 중에서 음식 문화가 일본에서 어떻게 뿌리를 내리고 번졌는지를 살핀다. 주방도구에서부터 술, 두부, 스시 그리고 음식을 담은 그릇 등 10개의 소재를 택해 그 양상을 상세하게 보여준다. 글쓴이는 불교나 김치 등을 당연히 자신들의 음식으로 알고 있는 일본인들의 잘못된 인식을 바로잡기까지 한다. 값 8천원.

▲삼국지 인간경영(주선 편역, 증명)= 적재적소에 맞는 인재등용과 공과사를 철저히 구분했던 조조, 넓은 포용력으로 뛰어난 인재들을 두었던 유비, 참을성 있게 때를 기다릴 줄 알았던 손권... 이 책은 수백 년을 이어온 베스트셀러 <삼국지>에 등장하는 주요 인물들의 전략과 경영철학을 통해 디지털시대에 적합한 인간경영, 즉 리더십, 통솔력, 업무추진 요령, 조직활성화 방안, 사업 전략 등의 노하우를 소개하고 있다. 값 7천5백원.

한글세대 위한 불교 입문서

치문경훈 현진스님 옮김



불문에 들어간 초심자가 처음 펼쳐 놓고 배우는 교과서 치문경훈(智文慶勳). 이 책이 한 글세대에 맞게 우리말로 옮겨져 나왔다. 치문경훈은 불법을 배우려는 초심자의 마음가짐, 생활 태도 등을 담고 있는 책으로 승가대학(강원) 사미파의 기본교재로 사용되고 있을 만큼 중요하다. 하지만 그 의미에 비해 널리 읽혀지지 않았다. 가장 큰 이유가 ‘한문’ 때문이다. 그 동안 출간된 역서들이 대부분 지역 수준이어서 대중성이 없었던 것이다.

현진 스님이 내놓은 <치문경훈>(시공사)

의 가장 큰 장점은 원전의 의미와 중요성을 살리면서 한글세대를 위해 쉽게 풀어썼다는 점이다. 글의 주제를 파악하기 쉽도록 제목까지 풀어썼을 뿐만 아니라 불교용어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을 위해 찾아보기를 따로 붙였다. 특히 계승과 운율을 갖춘 전통적인 한글 시가의 형식을 빌려 의역해 놓아 열중하기 좋다는 점도 이 책의 매력이다. 또 인물, 시대, 경전, 불교용어 등에 대해 조목 조목 정리한 사기도 수록했다. 본문을 보다가 자세한 설명이 필요할 때 사전을 뒤적일 필요 없이 사기를 참조하면 된다. 값 2만5천원. 김중근 기자(gamja@buddhopia.com)

◆금주의 베스트불서 10

순위	도서명	저·편자	출판사
1	선방일기	지 허	역시아문
2	산사 7면 특별한 식단이 있다	정 세 체	모 색
3	천수경 천수신앙	해 국	효 립
4	티베트의 신비와 명상	김 한 규	도파인사
5	일반승 수행일기	강 욱 구	동쪽나라
6	전통사찰음식	적 문	우 리
7	우리가 이 세상에 살게된...	다카하시	해 누리
8	생활 속의 기도법	현 타	효 립
9	만행-하버드에서 화계사까지	천 각	열 립 원
10	화두 놓고 열불하세	인 광	불 광

도서 안내: (02)737-0695

왕눈이 스님

서산대사의 범용을 이어 한국불교의 도도한 흐름을 계승시킨 관양 언기스님의 생애를 재미있게 그려내고 있다. 강백으로서, 선승으로서 수많은 제자들을 길러내어 현재 한국의 거의 모든 스님이 언기스님의 범용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평생 ‘이웃’ 화두를 들고 살았기에 ‘이웃’ 스님으로 불리워졌으며, 양을 치면서 수행한 일, 수많은 고아들을 돌보았던 일 등은 수행과 중생교화에 전념했던 스님의 삶을 엿볼 수 있게 한다.

정수일 글·그림/신국문/245쪽/값 6,000원

성철 큰스님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철저한 수행과 정진으로 일생을 일관하여, 장지던 한국불교를 깨워 일으켰던 성철 큰스님. 20세기 한국불교 최고의 선승으로 추앙 받는 성철 스님의 생애와 사상이 재미있게 그려져 있다.

임기준 글, 조성연 그림/값 6,000원

반야심경

대승불교의 핵심은 ‘공(空)’ 사상이다. 그런 만큼 ‘공’을 이해하면 불교를 다 이해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 만화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부딪히는 여러 가지 상황들을 통해 ‘공’ 사상을 알기 쉽고 재미있게 그려 나가고 있다.

임기준 편역, 남교회 그림/값 6,000원

어린이와 어른이 함께 읽는

재미있는 불교만화



화엄경 (전10권)

부처님 설법의 정수로 꼽히는 화엄경. 그러나 화엄경은 그 분량의 방대함과 내용의 난해함 때문에 일반인들이 쉽게 접근할 수 없는 단점이 있다. 이 만화는 어린 선재동자가 구도여행을 하며 53명의 덕 높은 스승들을 만나 진리의 세계에 눈을 떠가는 이야기를 통해 화엄경의 진수를 쉽고도 재미있게 그려내고 있다.

임기준 글, 조성연 그림/전 10권/각 권 5,000원

불타닥가모니 (전3권)

제1권 출가, 제2권 성도, 제3권 전법

부처님께서 히말라야 산기슭에서 태어나 위없는 큰 도를 이루시고 45년간 그 깨달음을 퍼신 과정에서 가장 요긴한 점들을 모아 재미있게 엮고 있다.

임기준 글, 조성연 그림/각 권 6,000원

백유경

부처님의 설법은 문학의 보물창고라고 할 정도로 수많은 비유와 교훈들로 가득차 있다. 특히 백유경은 그러한 이야기만을 모은 것이다. 만화 백유경은 웃으며 보다가 자신을 돌아보며 지혜를 얻는 재미와 교훈을 담은 100가지 비유 이야기를 담고 있다.

임기준 편역, 남교회 그림/값 6,000원